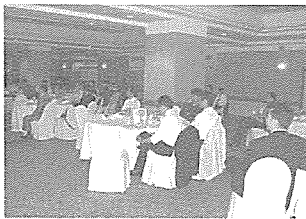




(주)아이넷피드

‘인류와 미래를 위한 양돈 산업의 비전’
세미나 개최



(주)아이넷피드가 주최하고 (주)디에스엠 뉴트리션 코리아가 후원한 ‘인류와 미래를 위한

양돈 산업의 비전’ 세미나가 지난 10월20일 JW 메리어트 호텔 3층에서 개최됐다.

유럽 및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DSM의 박사 3명이 초청돼 강연을 펼친 이 세미나에서 Dr. Ian Parfidge는 ‘이유 자돈의 최신 연구 동향’을, Dr. Christophe Paulus는 ‘친환경 영양을 통한 양돈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Dr. Alison Leary는 ‘인류를 위한 유·바이오텍’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크리스토프 펠루스(Christophe Paulus) DSM 박사는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가 자돈에서 100%에

가까울 정도며 육성비육돈에서는 약 30% 가량 유기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친환경 양돈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함께 항생제 대체 및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유기산제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크리스토프 박사는 실제로 VevoVitall 제품의 경우 “일당 증체량과 사료전환율은 물론 농가의 경제적 이득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장실험을 통해 VevoVitall을 급여한 농장은 대조군에 비해 약 8%의 사료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4%의 일당증체량이 높아졌고 농장의 암모니아 수준도 4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VevoVitall을 급여할 경우 kg당 1.73유로(한화약2130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험 시기에 따라 첨가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료 톤당 약 5kg을 급여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암모니아의 감소로 농장의 호흡기 질병을 감소시켜 결국 이에 따른 치료 비용의 절감은

업계 단신



농장의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아이넷피드 관계자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돈육을 섭취하던 시기에서, 맛과 영양을 따져 보고 축산물을 선택하는 시장의 흐름으로 바뀐 이 시대에, 항생제는 미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은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판매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섭취하는 돼지고기에 공급되는 사료는 더 깨끗하고 고 영양으로 설계돼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과 사료업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라이브뉴스

축산업계 최초 인터넷신문 서비스 개시

축산업계 최초의 인터넷신문인 라이브뉴스가 11월 1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이브뉴스(www.livesnews.com)는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산 쇠고기의 검역현장이나 HACCP 기준원의 개원식 등을 기사와 함께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현장에 간 것과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브뉴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원가입자수와 1일 방문자수, 동영상 클릭 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버 용량과 회선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브뉴스에는 축산인 등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나도기자 코너와 자유게시판,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의 장인 L타운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다.

한편, 라이브뉴스는 독자가 얻은 정보의 가치만큼 자율적으로 구독료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은 무료이다. 여기에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신청자(유료)에 한해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 전화 : 02)3471-7887/9339

• 팩스 : 02)3471-9229

다볼 바이오

새로운 도약 - KIC와 기술 제휴

daból 바이오
다볼 바이오

KIC

다볼바이오는 지난 7월 고객과 푸르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료첨가제의 차세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천연 젤라

틴 전문기업인 KIC와 기술제휴 협약을 가졌다.

가공사료기술에 대한 전문기술 및 환경친화적 제품을 연구·개발해온 다볼바이오와 천연결착제 조등록업체인 KIC의 전문화된 생산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

고 있다.

다불 바이오는 천연원료 연구를 통해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불 바이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 및 정보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해 축산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기술제휴를 통해 수개월동안 개발해 온 제1호 제품 생산을 마무리했으며, 11월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불 바이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고객 Big event를 개최, 사료공장 등의 의뢰에 따라 무료 가공사료 기술 세미나, 점검서비스는 물론 샘플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다불 바이오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정신을 토대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토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다불 바이오만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축산업계에 신선한 이미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다.

문의전화 : 031-381-3881

(주)우성사료

여주지역 오웰빙 우수목장의 날 행사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 11월 7일 여주군 강변유원지에서 여주 낙농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낙농인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 우



수목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주 검정회 회원을 비롯 청주, 충주, 당진, 홍성, 홍천 등지에서 70여명의 많은 낙농인이 참석, 행사장은 낙농인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성사료의 '오웰빙사료'를 급여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향아골목장(대표 최규준)과 수목목장(대표 박인용)이 소개됐다.

향아골 목장(대표 최규준)은 평균 착유두수 28.4두로 연평균 유량 35kg의 놀라운 성적을 달성했으며 오웰빙 급여 후 체세포가 124,000에서 114,000로 낮아졌고 공태일수도 147일에서 127일로 줄어드는 놀라운 개선효과가 있었다.

특히, 수목목장(대표 박인용)은 전국낙농검정성적 '베스트목장'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베스트목장'은 일시적인 성적향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유량과 유지율 등 여러 항목에서 지속적인 성적을 유지해야 선정될 수 있다.

수목목장은 평균 착유두수 30.4두로 연평균 36kg을 기록하고 공태일수 123일과 평균산차 3.1산을 유지했다. 두 목장의 성적보다 더 놀라웠던 점은 두 목장 모두 무더운 여름을 포함, 일년 내내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박중현부장(우성사료 여주지역 담당)은 두 목장의 우수한 성적을 높이 평가하고 목장의 수익과 더불어 한창 한미 FTA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우수목장이 갖는 의미를 시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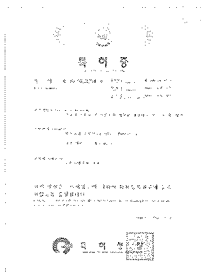
며 생애 총 산유량 5만kg가 현실에 가까이 왔음을 강조했다.

양돈사료 세계최초 특수 곡물가공 기법

- CPT공법 특허 획득

한국 양돈 상황에 맞는 가공 방법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기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특수한 곡물가공 기법인 CPT 공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다.

CPT공법은 우성사료가 출시한 이노텍 프로그램에 적

용된 공법으로써 출시 후 우성사료 양돈 사료 중 전체 점유율을 80%이상 점유하는 획기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가루 위주의 한국 양돈사료는 사료 첨가제(항생제,생균제) 첨가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영양소 이용률 저하, 분리현상, 먼지발생, 사료흐름 불량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성사료는 가루사료의 장점과 가공사료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끝에 CPT공법으로 이노텍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CPT 공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호성 및 소화율 개선

CPT공법에 의한 옥수수 특수 가공은 사료내 품미 물질을 생성 시켜 기호성을 향상시키고 전분의 알파화도의 증가로 에너지 이용성을 증가시킨다.

2) 사료 흐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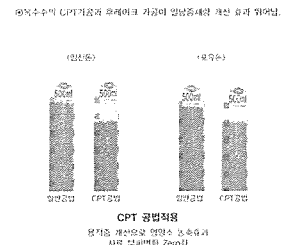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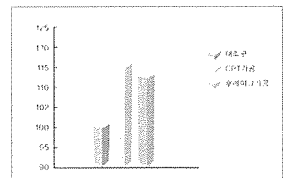
일반 가루 사료에는 액상 원료를 8~10% 이상 첨가하게 되는데 농가에서는 벌크빈 이나 급이 라인에서 뭉침 현상에 의하여 돼지가 굵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CPT 가공은 액상 원료를 내재 시킴으로써 사료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사료 흐름을 개선했다.

3) 분배설량 감소 및 위생 개념 도입

분배설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영양 이용성 증가뿐만 아니라 분변 처리비용 또한 절약 할 수 있으며 열처리에 의한 살균 효과로 병원성 미생물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용적중 개선 효과 및 부피 변화 Zero화

CPT 가공은 사료내 용적중을 개선, 영양소 농축 효과가 있어 같은 부피의 사료 섭취에도 많은 양의 사료 섭취 효과가 있어 돼지의 성장을 더욱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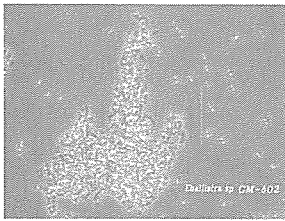
또한 사료 부피 변화를 최소화하여 일정 부피를 급여하는 모돈에게는 항상 일정하게 급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생산성 향상 효과

CPT 공법에 의한 특수 가공은 일반 사료보다 일당 증체량 개선 효과가 15%이상 향상된다. 따라서 일반 사료보다 출하 일령이 빠르고 사료 효율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미바이오(주)

**Phytate 분해 효소 Phytase 생산하는
미생물 Eballistra sp CM602 특허출원**



▲ Eballistra sp CM602의 현미경사진
Lactobacillus sp JCC-27
특허등록
(특허10-0607147호)

청미바이오(주)는 파이테이트를 분해, 인산을 유리시키는 효소인 파이타아제(phytase)를 생산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했다.

돼지, 가금 등 단 위동물에서는 사료 중의 유기인을 가용 유기 인의 형태로 전환하지 못하므로, 파이테이트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분뇨로 배출하고 있다.

가축이 섭취시 가축의 체내에서 우수한 효소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파이타아제를 찾고자 동물의 체온과 가까운 온도에서 비교적 높은 활성을 가지면서도, 광범위한 열 안정성 및 pH 안정성을 나타내는 파이타아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파이타아제를 생산하는 효모인 에바리스트라 sp (Eballistra sp) CM602를 분리 동정하고, 상기 균주로부터 생산된 파이타아제가 종래 보고된 파이타아제와 구별되는 개선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파이타아제임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했다(제2006-0092419호).

청미바이오(주)에서 현재 CM602 균주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및 발효 최적화를 통해 파이타아제 효소의 생합성이 증대됨으로써 효소 대량생산하기 위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특허출원된 '난소화성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능이 우수한 알파-갈락토시다제를 생산하는 락토바실러스 에스피 JCC-27 및 효소의 제조 방법' 이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청미바이오(주)는 바실러스 균종 1종, 유산균 1종을 개발 성공했으며, 기술이전으로 유산균주 4종과 농업용 토양미생물 2종등의 특허균주를 보유,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하고 있다.

청미락토 확대 보급으로 축산연구소로부터 감사패 받아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일리지용 첨가제(청미락토)가 보급돼 전국적으로 판매물량이 늘어나 신기술의 농가보급과 홍보가 극대화 되고 사일리지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청미바이오(주) 호남지사장(정용복)은 지난 10월19일 축산연구소장으로부터 신개발품의 농가 보급과 축산연구소의 홍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증정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일리지용 첨가제(4종)가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돼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전달됐으며 본 첨가제 이용으로 외화절감은 물론 첨가제 처리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텍

수산연구센터 건립



글로벌 사료 첨가제 회사인 올텍이 미국, 켄터키에 새로운 수산연구센터를 건립

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 새로운 연구센터는 7,500평방피트에 달하며, 올텍 수산제품의 증가하는 수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틸라피아, 메기류, 연어, 날새기, 농어류, 새우 등의 다양한 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산 연구 분야의 최고 대학과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올텍과 켄터키 대학의 연구협력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으며, 2005년 한 해에만 35개 이상의 프로젝트 실험이 진행됐다.

이 수산연구센터의 매니저로는 David Wood가 임명됐다.

올텍의 사장인 라이언스 박사는 “수산 관련 제품은 올텍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이 연구센터로 인해 올텍은 중심에 서서, 수산 분야에 최신의 기술 정보 및 해결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카길코리아 주식회사

2006 사회공헌대상 수상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카길코리아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열린경영원

에서 주관하는 2006 사회공헌기업대상, 축산업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공헌기업대상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극대화, 고용창출 등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로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창립 40주년, 카길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 축산업의 태동기인 1967년에 사업을 시작한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설립초기 ‘값싸고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이념으로 시작했으며 그 밑바탕에는 퓨리나 창립자인 윌리엄 덴포드씨의 ‘불굴의 도전정신’이 있었다.

1987년 설립된 카길코리아는 당시 축산사료산업 분야가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축산산업에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는 또 다른 도전과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2001년 세계최고의 농축산 기업 카길과 퓨리나가 통합되면서 세계최고 기업간에 통합이 이루어져 규모나 역량면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통합이후 카길의 본사의 비전과 더불어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카길코리아 주식회사는 비전과 사명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평가 기준에 더해 안전 최우

선 문화가 형성돼 있어 직원들은 물론, 더 나아가 고객,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안전 의식 덕분에 2004년 노동부에서 주최하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경영대상을 수상기도 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카길 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사업과 연구기금 수여를 통해 국내 축산기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현재 카길 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의 축산사료연구기술대상은 축산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종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외에도 구제역 발병 당시 대한 양돈협회와 퓨리나가 처음으로 시작한 지하철 광고사업, 퓨리나가 선도한 가축 질병 방역기금 조성 사업 등도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국내 축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해비타트 재단에 2002년부터

매해 6,000만원을 기부하고 매년 50여명의 직원이 해비타트 번개건축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대호

창립 제20주년 행사 개최

‘풍요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기업이념



을 가지고 그 동안 항생제 없는 친환경 축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주식회사 대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7일 센트럴시티 5층 크리스탈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호에 몸담았던 OB팀과 전직원이 함께 모여 지난 20년을 회고해보며 앞으로의 더욱 큰 발전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태일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대호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과 OB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축산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번영을 안겨 줄 수 있는 대호를 만들자”는 의지를 밝혔다.

단사회

11월, 하나로교역(주) 김종욱 대표이사 우승



우리협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사회의 11월 대회에서 김종욱 하나로

교역(주) 대표이사가 우승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메달: 윤병현 휘드베스트 대표
- 장타상: 이수방 피드텍(주) 대표이사
- 근접상: 김광수 바이오사료연구소 대표이사 ㉮